

#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원상복구'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맥쿼리 '보조금 소송' 각하 의미와 전망

광주시가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운영사업의 '재정지원금(보조금)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측이 자본을 고의로 잠식한 뒤 고이율(10~20%)로 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적자를 늘렸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 때문에 막대한 시 재정 보조금이 지급된 만큼 최초 협약 당시인 2001년 자본구조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광주시는 실제 2001년부터 지급을 중

단한 2011년까지 무려 1190억원을 민자 회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시는 계약 만료기간인 2028년까지 지원해야 할 돈은 기존 지급액을 더해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11년 10월 맥쿼리측에 현재 6.93%에 불과한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29.92%)로 복구하도록 감독 명령했으며, 맥쿼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맥쿼리

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자본구조 원상복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주시는 1. 2심에서 승소하자 일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맥쿼리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에서 원고인 맥쿼리측의 소송 청구 자체를 각하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연이어 승소가 올 연말에 예정된 대법원의 '자본구조 원상복구' 판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다면 민자투자자에 따른 자치단체의 과다한 지방 재정의 누수를 막아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자사업자측은 이번 청구 각하 판결에 대해 "광주시의 패소"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법리해석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맥쿼리측은 "법원의 각하 결정은 사실상 광주시의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패소한 것"이라면서 "광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3일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가 운영중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내 소태IC 요금소를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영화 '암살' 역대 한국영화 관객수 10위

1139만 넘어 변호인 제쳐

올해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한 '암살'이 역대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0위에 진입했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은 전날(22일) 19만930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관객수가 1139만9404명에 이르렀다. 이로써 '암살'은 '변호인'(1137만5944명)을 제치고 역대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10위를 차지했다.

앞서 '암살'은 지난 8·15 광복절에 올해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관객 10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다. 관객 1000만명 돌파는 한국영화로는 12번째, 외화까지 통틀어 16번째다.

'암살'은 이후 '인터스텔라'(1027만5509명), '겨울왕국'(1029만6101명)을 연이어 격파하고,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



론'(1049만4499명)을 넘어 올해 최고 흥행 영화로 등극했다.

/\*김미가기자 mekim@kwangju.co.kr

## 대중교통·도보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 논의

승용차 등은 도입 늦을 듯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의 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노동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연태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

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단계로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

## 술·담배·운동 부족... 30~40대 건강관리 가장 게으르다

질병관리본부 건강행태 보고서

광주·전남 전국 하위 수준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우리나라 30~40대는 건강생활 실천 노력을 가장 게을리 하는 연령대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3일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성인의 지난 7년간 주요 건강행태 변화(강양화, 성경미, 최형운, 이동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2만87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생활 여부는 현재

금연, 저위험 음주, 걷기 실천 등 3가지 척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파악했다.

'현재 금연'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위험 음주'는 비음주자이거나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지 않는 경우, '걷기 실천'은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시한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분석 결과 3가지 척도를 모두 실천한 비율은 30대에서 23.8%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25.0%의 40대가 이었다. 60대가 37.2%로 가장 높았으며 ▲20대(19세 포함) 35.4% ▲70세 이상 33.5% ▲50

대 29.8% 등 다른 연령대는 모두 평균(29.6%)보다 높았다.

반면 3가지 척도를 모두 실천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은 40대(6.6%)와 30대(5.6%)에서 가장 컸다. 특히 4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12.5%와 10.1%는 3가지 건강 척도 중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

성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건강 실천 정도에서 남성을 크게 앞질렀다.

여성의 37.6%가 3가지 척도를 모두 실천해 남성의 21.3%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의 0.5%만이 3가지 중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어 남성의 8.2%보다 훨씬 낮았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녀간 차이는 40대에서 가장 심했다. 3가지 모두 실천한 비율은 남성(14.3%)보다 여성(36.1%)이 2.5배나 많으며 50대(2.2배), 30대(2.0배)도 성별 격차가 큰 편이었다.

지역별로는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 건강 실천 정도가 양호한 편이었다. 3가지 건강 척도를 모두 실천한 비율은 서울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34.5%), 인천(33.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21.3%), 경남(21.5%), 경북(22.2%), 강원(22.3%)은 낮은 수준이었다. 광주(24.0%)와 전남(23.7%)도 낮은 수준이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대폭 강화된다

인력수 확대 등 문체부 입법예고

정부가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목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기존에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요건은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호인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

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으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인터넷신문은 매년 평균 1000여개씩 증가해 현재 6000개가 넘는다.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는 선정적인 광고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을 일삼고 불합리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업인의 난립을 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 초혼   | 추천회원  | 재혼   |
|--|---|--|
| <b>의사, 변호사, 약사, 현의사</b> 27-45세<br><b>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b> 28-47세<br><b>공무원(5급-9급)</b> 27-42세<br><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br><b>삼성, 현대, LG 직원</b> 28-47세<br><b>은행원, 연구원</b> 29-49세<br><b>대(중, 소)기업 직원</b> 27-48세<br><b>사업가, 자영업</b> 29-39세<br><b>세무사, 연구원</b> 29-48세<br><b>국영기업체 직원</b> 29-39세<br><b>교사, 교수</b> 28-49세 | <b>전문직 희망 여성</b> 25-38세<br><b>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b> 26-41세<br><b>간호사, 유치원 교사</b> 27-42세<br><b>의사, 약사, 교사</b> 25-39세<br><b>변호사, 회계사, 변리사</b> 26-39세<br><b>공무원(5급-9급)</b> 27-42세<br><b>정부투자기관 직원</b> 25-38세<br><b>간호사, 은행원</b> 26-47세<br><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42세<br><b>스튜어디스, 영양사</b> 26-42세<br><b>미스코리아, 미스전북</b> 27-36세 | <b>의사, 변호사</b> 32-65세<br><b>국영기업체 기관장</b> 52-66세<br><b>공무원, 교사, 교수</b> 35-65세<br><b>대기업 간부</b> 36-59세<br><b>회사원, 자영업</b> 33-67세<br><b>'무출산 여성' 희망</b> 31-58세<br><br><b>VIP 희망 여성</b> 29-53세<br><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63세<br><b>공무원, 교사</b> 32-58세<br><b>간호사, 회사원</b> 29-48세<br><b>자영업, 교사</b> 35-64세<br><b>'무자녀 남성' 희망</b>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로빌딩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장성군 북이면 신령리 백암사C인근 2층공장  
대지9,341㎡ 건물2,031㎡ 건물상태★★★★  
유제품제조공장 물류창고위치최적  
감정가41억5천 최저가11억9천 감정가의29%
- ★북구 일곡동 일곡중앙교회인근 카페의거리  
대지754.6㎡ 건물1653㎡ 지하1층~지상4층(E/V있음)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상권좋은 수익성★★★★  
감정가16억2천 최저가11억2천 감정가의70%
- ★북구 중흥동 대로변점(병원,사옥적합) 상업지역  
대지396㎡ 건물1,750㎡ 지하1층~지상5층  
사옥, 학원, 오피스텔용도★★★★  
감정가13억7천 최저가6억1천5백 감정가의44%
- ★동구 학동 지하2층~지상5층 근린주택  
대지456㎡ 건물1802㎡ 전대병원맞은편 도로접  
양·한방병원 위치, 접근성★★★★  
감정가23억2천2백 최저가16억2천6백 감정가의70%
- ★북구 두암동 지하1층~지상3층근린주택  
대지198.2㎡ 건물512㎡ 접근성★★★★  
헤어, 의류매장 모든업종가 시내버스승강장부근  
감정가3억9천8백 최저가3억1천9백 감정가의80%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잔금대출까지 상담가능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